

# “환경벤처기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할 터”

- 두산그룹에서 분사, 환경벤처기업으로 출발 앞둔 두산환경센터 유재성 소장



지난 91년 발생한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은 우리나라의 환경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기에 충분했다. 두산 전자 구미공장의 폐놀 방류로 인해 야기된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은 환경에 대한 위기감을 국민에게 각인 시켰고, 결국 기업이윤의 극대화는 절대 선이고, 그 선을 위해서는 식수원인 강물에 독약을 흘리는 것도 짐짓 눈감아주던 성장 일변도의 사고 방식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폐놀사건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제공자였던 기업들에게 환경을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특히, 폐놀사건의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던 두산그룹은 실추된 기업이미지의 회복을 위해 환경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 최우수 환경선도기업을 추구한다'는 장기적 목표 아래



“두산환경센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환경 지원조직·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환경정책의 수립, 환경진단, 기술문제 해결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환경전문회사로서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니다. 또한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환경전문회사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분사의 배경과 의미를 묻는 질문에 개원 당시부터 센터 소장을 맡아 두산환경센터를 이끌어 온 유재성 소장의 첫 마디이다. 다음은 유재성 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97년 두산환경센터 설립부터 분사를 앞둔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지난 97년 환경센터 발족 후 1년 동안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추진했습니다. 환경경영지침, 위기관리지침 등을 발간하는 등 환경친화적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수행

환경강령을 제정하고 ‘두산환경센터’를 발족, 운영하는 등 기업 생존의 사활을 걸고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 구축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로 설립된 두산환경센터는 지난 97년 개원 이후 수십 여 건의 환경 관련 기술특허를 취득하고 기업체 생산현장의 환경감시체계를 국제신용평가 체계와 결합시킨 ‘환경신뢰도 평가시스템’을 개발, 도입하는 등 두산그룹의 환경경영 전략 구축 및 환경기술 개발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렇듯 두산그룹 각 사업장의 환경기술·경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두산환경센터가 두산그룹에서 분사, 환경벤처기업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 환경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쾌선과 10대의 거리. 서울 동대문에 자리잡은 두산타워 빌딩에 31층에 소재한 두산환경센터에 들어서면 이러한 분사 준비에 따른 분주함이 느껴진다. 환경과 인터넷, 그리고 비즈니스를 접목한 의미인 듯한 ‘Ecobiznet’이라는 사명으로 두산그룹에서 분사, 독립법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중인 두산환경센터의 직원들은 저마다 바쁜 업무에 여념이 없다.

“그 동안 우리가 쌓아 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환경 지원조직·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환경정책의 수립, 환경진단, 기술문제 해결 등을 제공할 계획입

### 유재성 소장은?

유재성 두산환경센터 소장은 환경기술 및 환경경영 실무의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은치 않은 환경인으로 꼽힌다. 53년 서울 출생인 그는 76년 성균관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두산그룹 OB맥주(주)에 입사하면서 환경과 인연을 맺었다. 80년에 환경관리기사(대기 1급), 88년에 생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환경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실무를 쌓았다.

94년 두산그룹 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97년 두산환경센터 초대 소장에 취임한 유 소장은 현재 환경보전협의회 전문위원,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심의위원, 산업자원부 산업환경정책 실무위원 등 환경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기술상, 서울시 서울환경상 등을 수상했으며, 95년 연세대에서 석사, 올해 부산대에서 환경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

“앞으로의 환경산업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현재의 단순 분류를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분야가 환경에 관계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인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 경쟁력을 갖춘 환경관리인들이 환경벤처기업에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했고, 또한 광합성세균을 이용한 폐수처리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기술 인정 및 환경기술특허도 많이 얻고, 사업장 환경개선으로 비용절감효과도 크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98년도에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환경센터의 활동과 조직이 위축되었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한 준비로서, 또한 세계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환경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분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분사 기업이 주력하게 될 환경사업의 분야는?**

분사 기업의 사업분야는 환경경영전략수립 및 체제구축

컨설팅, 기업환경진단 및 평가, 환경리스크 평가, 환경기술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리스크평가에 환경 항목이 포함되는 등 환경리스크평가 부분의 사업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저희 두산환경센터가 작년에 개발한 환경신뢰성평가프로그램 등 많은 노하우를 활용, 환경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부문에서는 그 동안 저희 환경센터가 개발한 고농도폐수의 처리, 질소·인제거 기술 등 최첨단 환경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환경 관련 기업 및 현장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까지도 할 수 있고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환경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크게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환경파괴의 주역이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나름대로 원료의 취득, 생산과정, 소비과정, 폐기과정까지 생각하고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도, 과거에는 적발 단속만을 위주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환경리스크평가를 도입하는 등 기업경영에 환경시스템이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환경친화적 제품을 만들 수 밖에 없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 정부, 시민 3자가 노력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문제를 대하는 우리 나라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면?

여러 경영요소 중 가장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환경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경영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서 환경이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캠페인 적으로, 일회성 행사로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가시적인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환경'이 기업문화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의 환경정책 수준을 평가한다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법규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법규는 결국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많이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규에서 비합리적이고 중복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규제개혁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 나라 환경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환경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바꿔야 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원수, 회사대표, 가장 등 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환경문제를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의 환경관리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아직까지 환경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특히 IMF로 인한 구조조정 기간에 우리 환경관리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환경과 생명공학, 정보통신 분야의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여기서 환경분야의 전망이 밝다는 말은 '삶의 질'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즉 삶의 질과 연관되지 않은 정보통신,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환경산업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현재의 단순 분류를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분야가 환경에 관계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인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 경쟁력을 갖춘 환경관리인들이 환경벤처기업에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